



[금융]  
가상자산  
투자 주의보  
올해 20개 상장폐지  
05

# metro<sup>®</sup> 경제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35.59 (+3.71)	↑ 코스닥	1000.65 (+11.26)
↓ 금리 (연고래 3%)	1.140 (-0.028)	↑ 환율 (원/달러)	1124.90 (+3.7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코스닥 지수 1000선 돌파... 20년 7개월 만**  
코스닥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2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26포인트(1.14%) 오른 1000.65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웃돈 것은 증가 기준 정보기술(IT)주 붐이 일었던 2000년 9월 14일(1020.70) 이후 20년 7개월 만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지수 1000 돌파 기념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학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뉴시스

## 이달 외국인 '바이코리아' 반도체·인터넷·은행株 샀다

4월 국내주식 2조 가까이 매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들여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기간 4월1일~11일)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삼성전자	9542억원
2	SK하이닉스	4356억원
3	카카오	2745억원
4	우리금융지주	1363억원
5	SK텔레콤	1072억원

외국인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은 주로 반도체·인터넷·은행주를 순매수했는데, 자금 유입으로 인해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유의미한 순매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2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1조957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매수에 전환에 코스피지수는 31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외국인의 이달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9542억원)와 SK하이닉스(4356억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1분기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오는 2분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어 카카오(2745억원), 우리금융지주(1363억원), SK텔레콤(1072억원),

엔씨소프트(985억원), 셀트리온(866억원), DL이앤씨(635억원), 기아(383억원), 현대건설(367억원) 등의 순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중국과 인도에서는 빠져나가는 반면, 우리나라와 대만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4월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급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 흐름은 눈여겨 볼 만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안소는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1분기 외국인 자금 이탈 이후 4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아시아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화는 IT를 비롯한 제조업과 교역 경기의 회복 기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

## 신라젠 인수 유력 엠투엔 '신약 후보물질' 과장 의혹

엠투엔 IR 과정서 일부 과장 확인  
그린파이어바이오 임상능력 부족  
신약후보물질 보유 GRN-300 뿐  
당사 "강조하는 과정 표기상 오류"

신라젠 인수 후보 가운데 '1강'으로 꼽히는 엠투엔이 투자설명회(IR)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미국 현지회사를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췄다는 당초의 평가와 다르게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인수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신라젠 인수戰 엠투엔 선두

신라젠은 1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원매자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인수전에 뛰어들 기업은 엠투엔, 비디아, 휴백셀이다. 각 후보자는 PT에서 인수가격과 향후 경영계획, 연구·개발(R&D) 능력 등을 발표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이르면 다음 날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인수 후보 가운데 엠투엔이 유리한 지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계사에 리드코프 등이 있어 자금 동원력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엠투엔 최대주주인 서흥민 디케이마린 대표는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현지 바이오 사업파트너인 그린파이어바이오의 신약 개발 능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엠투엔은 지



지난해 11월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난해 10월 그린파이어바이오에 총 623만달러(약 71억원)를 투자해 18.69%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 ◆임상시험 능력 과장...표기 오류?

하지만 엠투엔이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린파이어바이오의 임상시험 능력이 일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엠투엔의 그린파이어바이오 관련 IR 자료를 살펴보면 신약후보물질로 GRN-300, GRN-400(Green4Bio), GRN-500을 소유했다고 명시돼 있다. 엠투엔이 신라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미국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파이어바이오가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한 보유물질은 GRN-300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 15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엠투엔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

보면 GRN-300이 삼중음성유방암(TNBC)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립보건원(NHI) 임상시험 등록사이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난소암 관련 임상 1상 환자 모집 중인 연구에만 등록돼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 계획(IND)을 제출하려는 바이오회사들은 이곳에 파이프라인 후보 신약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엠투엔 관계자는 "GRN-400은 전임상 단계에 있으며 GRN-500은 인수를 준비 중이다. IR 당시에는 곧 인수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수 검토가 완료된 만큼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기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LG-SK 배터리 분쟁 종식, 참으로 다행”

文대통령, 분쟁 해소 환영의 뜻  
“세계 친환경차 산업 선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 해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장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성장해 온 LG(LG에너지솔루션)와 SK(SK이노베이션)가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망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내의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전

락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서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어온 배터리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현재까지 기준 총액 2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또, 관련 국내의 쟁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文대통령 인적쇄신안 윤곽... 참모→개각→총리 교체 순 될 듯 /사진 뉴시스  
▲ 軍, 北 SLBM 발사 조짐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중"

▲ 12일 코로나19 확진자 587명... 누적 확진자 11만 명 돌파  
▲ 접종 후 사망 11건 모두 인과성 인정 안돼... 중증 이상반응 1명 인정



▲ 겁없는 취객들... '방역 나몰라' 유흥업소 650여명 단속 /사진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다음주 예정... DDP서 온라인 진행